

임방울국악제 19일 개막

22일까지 광주문예회관·빛고을시민문화관 등서

총상금 1억2000여만원...올해 첫 서울 축하공연

판소리 '쑥대머리'는 '임방울 소리'의 처음이자 끝'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광주시 광산구(옛 전남 광산군 동곡면)에서 태어난 국창 임방울(1904~1961) 선생은 민초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판을 벌이고, 기막힌 소리로 그들을 위로했다.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제22회 임방울국악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빛고을 시민문화관, 동림동 다목적체육관 등에서 열린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가 주최하는 임방울국악제는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에 상금 2000만원과 부상으로 임방울상(像) 순금 트로피(1000만원 상당)가 주어지는 등 총 105명에게 1억2000여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국내 최대 규모 국악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축하 공연을 갖는 등 축하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축하 공연은 오정해와 남상일의 사회로 열린다.



안숙선

오정해

이번 무대에서는 임방울국악제 수장인 한국농악보존회 광주시지회(지회장 최상진)의 '빛고을의 올림타악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인 안숙선과 강정숙 명창을 비롯해 조상현 명창이 우리 소리의 매력을 선사하며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비보이 그룹 등이 출연한다. 특히 임방울 선생 외손녀인 성악가 박성희씨의 무대가 눈길을 끈다.

공연 실황은 TV조선에서 생방송 중계한다.

임방울국악제 첫날인 19일은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으로 문을 연다. 19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판소리

애호가들이 '쑥대머리', '추억', '호남가' 등 선생이 즐겨 불렀던 소리를 부르는 공연이다.

이날 오후 6시20분부터는 오정해의 사회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전야제 행사를 갖는다. 조상현의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비보이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본격적인 공연은 20일부터 시작된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학생부 공연이 펼쳐지며 21일에는 판소리 명창부, 기악·무용 부문 예선과 판소리 일반부, 가야금 병창 예선이 동림다목적체육관 등에서 분산 개최된다.

22일 열리는 본선대회에 앞서 오후 1시20분부터는 광주문예회관 국악당 앞에 세워진 임방울 선생 동상 앞에서 '국창 임방울 예술혼 모시기' 행사를 갖는다.

본선 공연은 22일 오후 2시부터 광주문예회관에서 대통령상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판소리 명창부를 비롯해 기악, 무용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연 실황은 SBS를 통해 생중계된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창’의 삶 몸짓으로 승화



◀김미숙뿌리무용단 ‘가객’(歌客), 국창 임방울(원 안사진)을 노래하다.

김미숙뿌리무용단 ‘가객’...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임방울 선생의 삶이 춤으로 되살아났다.

김미숙뿌리무용단(단장 김미숙 조선대교수)이 ‘가객’(歌客), 국창 임방울을 노래하다(이하 ‘가객’)를 4일 오후 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무대에 올린다.

‘가객’은 ‘뿌리깊은 나무’ 시리즈를 통해 도공 심수관, 화가 의재 허백련, 김대건 신부 등 역사 속 인물들을 재해석해 다양한 작품을 공연해온 김미숙뿌리무용단이 한국 전통 무용의 기본 춤사위에 현대무용

을 접목시켜 제작한 작품이다.

지난 2011년 초연한 ‘가객’은 2012년 제주도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지난해에도 한차례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대무용 부문을 축소하고 한국적인 춤사위 위주로 안무를 짰다.

프롤로그 ‘암울한 시대’를 시작으로 ‘소리를 만나다’, ‘쑥대머리’, ‘처연한 사랑’, ‘은둔과 집거’, ‘진양조의 추억’, ‘고단한 시대에서’, ‘국창을 떠나 보내다’, 에필로

그 ‘아! 임방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인(빛마루무용단 수석 무용수)씨가 임방울 역을 맡았으며 그가 사랑했던 산호주 역으로는 김수영(무등산인 무용제 최우수상 수상)씨가 출연한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원들도 참여했다.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처연한 사랑’에서는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잔미(정음시립국악단)씨가 임방울의 대표곡 ‘쑥대머리’를 부르며 주홍씨가 샌드아트메이션을 선보인다. 오는 11월12일 한차례 더 공연된다. 문의 062-230-7425. /김미은기자 mekim@

돈키호테가 배비장 만났을 때

시립국극단 창극 ‘동기호테’ 4~5일 광주문예회관



스페인 라 만차의 기사 돈키호테가 조선시대에 나타났다.

광주시립국극단(예술감독 윤진철)이 창작 창극 ‘동기호테’를 무대에 올린다. 4~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춘향전’, ‘심청전’ 등 전통 창극과 함께 안중근, 임방울 등 역사 속 인물들을 극화했던 시립국극단이 이번에는 과감하게 서양 고전 작품을 재해석,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이번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원작 ‘돈키호테’를 재미있게 비틀고 고전 ‘배비장전’을 접목시켰다.

돈키호테와 그의 충직한 부하 산초가 ‘배비장전’의 주 무대인 제주도에서 만난 기생 애랑을 구하기 위해

별이는 좌충우돌 모험담이다.

조선시대로 들어온 돈키호테와 산초는 애랑을 자신들이 애대게 찾는 공주 돌시녀아로 착각한다. 출세욕 강한 제주 목사 김경의 요구로 배비장을 농락했던 애랑은 결국 한양 명월관으로 팔려가고, 몰래방아를 괴물로 착각하고 대결을 벌이다 옥에 갇힌 돈키호테는 애랑을 구하기 위해 배비장과 함께 서울로 향한다.

예술감독 윤진철씨가 작창과 주인공 돈키호테로 출연하며 하현수, 양재남씨가 산초와 배비장 역을 맡았다. 애랑 역의 조혜리, 제주 목사 김경 역의 장영한 등 국극단 단원과 객원 배우 등 80여명이 출연한다.

최수용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강운(대본), 김성국(작곡) 강중화(지휘·편곡), 류장현(안무)씨 등이 참여했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6-0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 도시들, 다양성 지키는 방식은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4~21일 예술마루...15개국 240여명 참여



김찬주 작 ‘공존’

각국의 미술인들이 여수의 도시성과 세계 지역사회의 변화를 다룬 작품을 여수에서 선보인다.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이 4일 개막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8일간 GS칼텍스 예술마루, 전남대 아트센터, 전남대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은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격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미술 축제, 세계 근·현대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올해는 ‘새로운 필요-지역사회와 영토’(A new necessity-Community & Territory)를 주제로 15개국 240여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존 고도, 페이 준, 타카유키 카타야마, 필립 슈마허 등 15개국 3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전시’와 국내작

가 213명이 참여하는 ‘국내전시’로 기획됐다.

제5회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주제의 출발은 변화하는 도시다. 하나의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작가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영토에 관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작품에 담았다. 이 작업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지역성에도 불구하고 확립되어가는 현대 지역사회에 맞서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키고 타 지역과 호흡해 나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문의 061-920-201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쁜 마음 가득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soojang.com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